

테마칼럼

다문화시대

바라바 광복

경제논단

행정칼럼

문화수도의 꿈



조담

광주의 교육기관들이 문화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양적, 질적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평가해 보고, 어떤 영역이 광주에게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보자

광주는 문화수도를 꿈꾸고 있다. 이 꿈은 단순히 문화의 문제만이 아니고, 도청이 빠져나간 광주에서 미래의 먹고 사는 발전을 마련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정부는 수조원의 혈세를 문화의 전당 건립에 쏟아 붓고 있고 여러 가지 잡음과 경제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해 오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민은 지금까지 문화수도의 꿈을 꿀 수 있는 충분한 배경과 자질, 의욕 등을 갖고 있다고 자부해왔고, 단 한번도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을 의심한다면 다른 데는 몰라도 광주에서는 뭘매 맞고 쫓겨 날 일이었다. 그런데 명색이 문화수도를 꿈꾸는 광주에서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한분을 제대로 선임하지 못해 망신을 사고 있다.

잘못된 감독 선임 망신살

학문적 경력이 축적된 대학이 우수한 교수로 채용한다. 우수한 경영공토와 경영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우수한 경영자, 성실한 직원을 선발하여 데려간다. 그래서 사람 하나를 잘못 쓰면 그 책임은 그 사람을 채용한 임명권자에게 돌아오고,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면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사기당한 회사가 진다. 지금 우리 앞의 바로 이 상황이 문화수도를 준비하는 광주의 수준, 광주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한다.

이번 일을 보면서 필자는 평소 애 말 못하고

속으로 숨겨왔던 생각이 뇌리 한구석으로부터 고개를 쳐들고 있다. 그 생각의 정체는 광주가 정말 문화수도가 될 수 있을까, 문화산업의 메카가 되어 언젠가는 광주에게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날이 있을까, 실속있는 문화수도를 이루기 위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혹은 정치권들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조금은 방정맞고 조금은 싸가지 없는 의문들이다.

필자는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논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화수도의 내용을 설계하는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광주가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수도가 될 수는 없다. 이대로 가면 소위 문화의 한부분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영역이 나그네라도 나서 밭그릇 싸움을 벌이고, 그 결과 문화전당의 건물만을 갖고 있는 문화수도가 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문화수도의 문화란 말이 좀더 실질적인 측면, 즉 음악, 미술, 영화, 무용, 만화 등의 구체적인 영역을 강조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쯤은 짐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에 덧붙여, 문화수도의 꿈이 이루어져서 광주가 잘사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필자는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논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화수도의 내용을 설계하는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광주가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수도가 될 수는 없다. 이대로 가면 소위 문화의 한부분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영역이 나그네라도 나서 밭그릇 싸움을 벌이고, 그 결과 문화전당의 건물만을 갖고 있는 문화수도가 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해 둘 필요가 있다. 문화의 구체적 영역별로 광주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영역이 대한민국 또는 아시아를 선도하고 있는지, 아니 좀더 구체적인 예로 영화나 오페라, 콘서트, 전람회 등의 흥행실적이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어떤 크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광주의 교육기관들이 문화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양적, 질적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평가해 보고, 어떤 영역이 광주에게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자. 요즘 유행하는 경영학 용어로 말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고, 그 이전에 치밀한 프로파일 분석을 해보자는 말이다.

선택과 집중, 실속이 채워져야

문화는 광주만의 독점물이 될 수 없다. 어느 도시나 문화도시, 문화수도, 문화의 중심을 자처할 수 있다. 거액을 들인 건물만으로 문화수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실속이 채워져야만 멋있게 문화수도를 자처할 수 있고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것은 너무 분명한 일이다.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성국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무더운 한낮, 시원한 물속에 몸을 담그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즐겁다. 그러나 즐거운 여름휴가가 예상치 못한 물놀이 사고로 인해 불행을 맞을 수 있다.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과 발생시 대처요령·응급처치 요령에 대해서 숙지하고 휴가를 떠나야 한다.

모든 물놀이 사고는 안전요원이 없는 야외, 강가나 계곡, 바닷가 등에서 일어나며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로 일어난다. 어른의 경우에는 수영 미숙, 술이나 약을 먹고 물에 들어간다든지, 수심을 선별리 판단해 들어간다든지, 수영 전

아한다. 장비도 없고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물에 들어가 구조해야 할 경우에는 익수자의 앞쪽으로 접근은 절대로 피하고 등 뒤쪽으로 다가가 목 주위를 팔로 감싸 안은 상태로 구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종 익수자를 구하려다가 자신까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이빙 또는 실속에 의한 익수환자는 경추(목)손상이 자주 발생하므로 구조 후에는 반드시 하늘을 보고 누운 자세로 눕히고 목을 펴고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아니면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경추를 움직

물놀이 사고 불행 막으려면

준비운동부족으로 근육 경련이 일어나 사고가 발생한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른들이 잠깐 방심한 사이에 물에 들어가거나 물살에 휩쓸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거나 수영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식사 바로 후나 술, 약 복용 후에는 수영해서는 안 된다. 또 찬물이나 깊은 곳은 피하고 소나기나 천둥, 번개 시에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수심이 얇은 곳, 물살이 없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도록 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이 발생했을 때는 구조를 위해 무조건 뛰어들어서는 안 되며 주위에 구조할 장비들(보트, 튜브, 밧줄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이를 이용해 구조해야 한다. 구조 장비 등이 없을 때에는 119에 구조신고를 신속하게 해

여서는 안 된다. 익수자를 구조한 뒤에는 저체온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젖은 옷을 벗기거나 마른 따뜻한 담요 등으로 체온을 유지해줘야 한다. 머리를 뒤로 약간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유지한 다음, 환자가 의식이 있고 호흡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하는 것이 좋다.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지 않을 때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심폐소생술(심장압박)을 바로 실시하면서 구강대구강법으로 호흡보조를 하고 주위에 신속히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물 무더운 여름, 휴가를 예정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물놀이 가기 전, 주의해야 할 사고예방 및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꼭 숙지해 가족·친지·친구·연인들 모두 재밌고 유익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길... <동아병원 응급의학과 원장>

외래어종 유입 근본적인 차단 대책을

외래어종들로 인해 토종 민물 고기들의 씨가 말라간다고 한다. 강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던 민물 고기들은 수족관에서 볼 수 있는 희귀종으로 변하고 있다. 대표적인 외래어종인 배스, 블루길 등이 우리 호수와 강을 점령하기까지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었던 것 같다. 지금까지도 외래어종 유입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단속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일부 수족관에서 판매되는 외래어종

의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관련 기관을 통한 토종 민물고기 지키기홍보도 펼쳤으면 좋겠다. 아울러 외래어종의 낚시대회나 먹거리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해 체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외래어종은 토종 물고기들을 무차별로 잡아먹어 아무리 방생을 늘린다 해도 그 효과는 크지 않다. 외래어종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옥희·광주시 북구 우산동>

기고

공순환



우리경제의 발전 속도와 의료기술의 발달에 비례해서 국민의 평균수명이 78.5세로 높아져 남자가 75세, 여자가 82세로 세계 26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누구나가 누리고 싶은 행복에 대한 그 수치, 즉 행복지수는 경제력이나 의료기술의 발달과는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람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과 장수와는 별로 관계가 없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행복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영국의 싱크탱크 신 경제학재단(NEF)이 최근 178개국의 행복지수를 발표한 바에 의하면 1위 바누아투, 2위 콜롬비아, 3위 코스타리카, 31위 중국,

의 공극 목적인 '자아실현'이 형성되었을 때이다. 둘째는 생체·물질적 조건이다. 생체유지의 기본적인 물질적 요소로 인간이 행복으로는 살 수는 없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복 그 외의 물질적 요소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는 본능적 욕망의 표출로 개인의 감정행위가 관용되는 사람이 이상의 법칙에 따르는 '동물적이성적 자아'와 대비되는 동물적인 자아의 면모의 합리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체 존속차원에서 가치질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적절한 규범적 통제와 타 구성원과의 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자신보다 남을 위한 행복을

66위 이탈리아, 일본이 95위이며, 우리나라가 102위이고, 오늘 날 선진국인 미국이 150위, 영국이 108위, 프랑스가 129위이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인 바누아투는 호주부근의 작은 섬나라로 인구 20만 정도에 소규모 농업과 관광업이 주를 이루며, 유명한 번지점프가 이 나라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행복'이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냥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잘 산다'는 본질이 바로 행복인 것이다. 이러한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의 구비가 필수적인데 첫째는 정신·교육적 조건으로 이것은 심리적·주관적요소로서 삶의 질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간이 기본교육을 충분히 체득한 후에 자기적업

넷째는 개성적 조건이다. 우리 인간은 억압과 통제보다는 자유와 자율 속에서 행복을 더 느끼기에, 그 속에서 개인적인 능력이 많이 발휘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의 관계적 조건이다. 배신과 갈등보다는 유기적인 신뢰관계를 끊임없이 형성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내의 타인들의 행복도 함께 달성이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언젠가는 아니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자기 일신을 위해서만 행복을 회구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지구촌 인류전체를 위하여 이상의 활동인 '사랑'을 가지고 공통 선(善)을 위한 삶을 영위하면,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 여기 있을 것이며, 바로 거기에 비로소 참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광주 광산중학교장>

민박집 제공 생활용품 가져가는 몰상식한 행위 말아야

농촌 지역에서 도시민들을 위해 비는 방들을 대여해 주는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방을 개조해 주말 도시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이용객들 중 방에 비치했던 수건과 비누, 치약 같은 물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다. 농민들은 그래도 손님이니 값싼 비누나 치약, 저질의 수건을 비치하면 혹시 다음에 이용하지 않을까봐 좀 나은 품질로 장만해

놓는데 사용한 뒤 들고 가면 어떻게 하나.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떠날 때 일일이 방에 들어가서 확인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한달에 몇번씩 없어진 물건들을 새로 채워 넣는 것도 힘들다. 기특이나 농촌 살림이 힘들어 먹고 살자고 하는 민박 운영 아낙, 얼마 되지 않는 생활 용품을 가져가는 몰상식한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최남이·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시설

광주 청년층 실업률 전국 최고라니...

광주지역의 청년층 실업률이 서울의 두 배에 육박하는 등 전국 최고라고 한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층 취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2·4 분기 현재 광주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2%로, 전국 평균(7.3%)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전국 6대 광역시 평균(8.4%)은 물론, 서울(6.5%)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청년 실업자의 양산은 결국 지역경제의 활력을 그만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광주의 경우 청년층 인구 31만9천명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가 전체의 60%인 19만명에 달하고 있다. 청년층 10명 중 6명이 '백수'인 셈이다.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고 자꾸 속으로 굶어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 지역 산업 구조가 열악해 '괜찮은 일자리'가 타지역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용 창출력이 약화돼 젊은층이 만족할 수 있

는 고부가 가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실업 대책이 청년층의 눈높이와 취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고학력화에 따라 취업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청년실업 대책은 젊은층이 선호하지 않은 낮은 임금과 비정규직 일자리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년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에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자리 부족은 젊은 인력의 역의 유출을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산업 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게 지역경제의 현실이다. 결국,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많이 창출하는 길밖에 없다. 정부나 지자체는 단기적인 실적에 급급해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업유치, 산학협동 활성화, 노동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비엔날레재단 과감한 개혁으로 거듭나야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이사진의 사퇴로 창설 13년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갑수 이사장과, 당원직을 갖고 있는 이사 한 이사 27명 전원은 지난 18일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공동예술감독으로 선임한 신장익씨의 '가짜학위' 사태로 국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킨데 따른 것이다.

이사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비엔날레재단은 감독 선임과정에서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 검증에 한계를 드러냈다. 그 결과 국내외의 대표적 국제비엔날레인 광주비엔날레의 명성과 위상을 엄청난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이사진이 사퇴했다고 해서 사태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신씨의 감독 발탁배경과 선정경위 등에 대한 의혹은 무성하지만 드러난 것은 없다. 비엔날레재단이 신씨를 검찰에 고소한 만큼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재단도 더 이상 사임을 감추려 해선 안 된다. 일부 이사들은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과 절차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재단은 위압이나 의혹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한갑수 이사장의 선임권을 갖고 있는 이사장에게 신씨를 추천한 인사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위압이 없고 절차상 잘못이 없다면 선정경위를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이사진의 전문성 강화, 정체성 확립 등 근본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이같은 사태는 되풀이 될 수 있다. 직원이 19명에 불과한 데도 이사가 무려 27명에 달하는 기형적 구조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10월 열린다. 재단은 당원직 이사 8명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기로 했지만 하루빨리 조직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 비엔날레재단은 과감한 개혁을 통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후이남(Houyhnhnm)의 나라는 진리만이 통하는 세계다. 후이남들에게 거짓말은 쓸모없고 무의미한 것일 뿐이다.

반면 지아니 로다리의 동화 '거짓말쟁이의 나라'는 거짓말이 당연한 의무인 곳의 이야기다. 해적 선장 지아코모네는 육지의 한 마을에 정착하면서 어느 누구도 진실을 말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어휘의 뜻을 개정했다. '해적'은 '신사',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햇빛'이라고 불렀다. 결국 어떤 고양이가 "멍멍!" 짓는 대신에 "야옹!"이라고 울었을 때 반란이 일어났다.

이 상반된 두 세계는 거짓말이 본연의 의미를 가지고 통용될 수 있기 위해 서로 적합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탈리아 철학자 마리아 베테티노도 '거짓말은 남을 속이려는 확고한 의도를 일말의 진실이라는 요소로 포장할 때 최적의 조건이 마련된다'고 썼다. 실제 사실과 가정을 거짓을 적

당히 섞을 때 더 그럴 듯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거짓말에 관한 작은 역사') 베테티노는 '거짓말이 자신에 대한 편견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 날카로운 통찰력은 가짜 학위 파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광주 비엔날레 사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미국

으로 떠난 신장익 교수를 보면 '인성이 불쌍하다'는 씁쓰레한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그녀가 배한 거짓말을 할 수 있게 한 '적합한 환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추천 과정을 합구하고 있는 한갑수 이사장 등 재단이다. 속사정

을 덮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한, 신 교수의 거짓말은 계속될 게다. 민주당 정치서는 적합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탈리아 철학자 마리아 베테티노도 '거짓말은 남을 속이려는 확고한 의도를 일말의 진실이라는 요소로 포장할 때 최적의 조건이 마련된다'고 썼다. 실제 사실과 가정을 거짓을 적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